

# 홈트가 즐거워진다...광주·전남 체육계 영상 제작 '눈길'

### 전남도체육회, 개그맨 윤택 출연 영상 제작...어르신 건강 챙기기 나서 광주장애인체육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체육 유튜브 생방송 시작

광주·전남 체육계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홈트레이닝 영상물을 제작하고 생방송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기존 딱딱한 영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그맨 윤택을 참여시켜 영상을 제작, 유선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집에 머무는 장애인들을 위해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했다.

20일 전남도체육회는 영상물 '청춘을 돌려다오' 프로그램을 23일 오전 8시25분 LG헬로비전 호남방송(전남지역 채널 25)에서 첫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남도체육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체조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콘티로 구성돼 있다.

개그맨 윤택의 재치발랄한 진행과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박수체조와 라인댄스, 요가 등을 시연하면서, 김경호 한의사의 전문적

인 지식 조언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몸장 한의사'로 유명한 순천 출신 김경호 한의사를 비롯 에어로빅과 요가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란광·백화연(이상 장흥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김은하(영암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씨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켰다.

도체육회는 유튜브 송출을 통해 전남도 전 체육인들에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어르신들이 가정이나 경로당, 양로원 등에서 폭넓게 활용하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어르신들이 가정 등에서 웃으면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이번 전남도체육회가 제작한 '청춘을 돌려다오' 프로그램은 색다른 재미를 더함으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9일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첫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방송을 시작했다.

이번 'Live방송'에는 60분간 총 153명이 접속했으며 테니스, 좌식배구 등 장애인체육 선수들과 사랑모아주간보호센터의 장애인들이 함께 했다.

김안나, 최은희 건강운동관리사가 진행을 맡아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필라테스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단체 등에 홍보를 통해서 매주 3회 이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독창적이며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서용규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생활의 활력을 찾고,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지난 4월부터 꾸준히 120편의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 및 보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개그맨 윤택(오른쪽)씨가 진행자로 출연한 전남도체육회의 '청춘을 돌려다오' 프로그램. <전남도체육회 제공>

## "올림픽 가자" 강진서 전지훈련하는 여자축구 대표팀



20일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감독 콜린 벨) 선수 21명이 강진군 축구전용구장에서 영랑과 다산구장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2월 10일까지 이어질 전지훈련은 2021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한 플레이오프 경기에 대비한 것이다. <강진군 제공>

## 예정대로? ... 여자축구 올림픽 PO 1차전 홈경기 가능성

###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긍정 검토 중국 이기면 첫 올림픽 본선 진출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중국과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 1차전을 예정대로 홈에서 치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PO 관련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려면 국내에 방문하는 중국 선수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수들의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필요하다"며 "해당 내용을 문체부에 전달했고, 문체부와 중대본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적인 대회인 만큼 자가격리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중국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PO를 치른

다.

예초 PO는 지난해 3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미뤄졌다.

계획대로라면 1차전은 2월 19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차전은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중국 쑤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면 양국 대표팀 모두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한국이 격리 규정을 유지하고 중국은 면제할 경우, 중국축구협회가 1, 2차전을 모두 자국에서 개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한국도 중국도 아닌 중립 지역을 찾아 경기를 치러야 한다.

여러모로 번거롭다. 게다가 영국에서 뛰는 지소연(첼시 위민), 조소현(웨스트햄), 이금민(맨체스터 시티) 등의 격리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이 입국한 뒤 정상적으로 대표팀에 합류하는데도 차질이 생긴다.

1990년에 만들어진 여자 대표팀은 그간 올림픽과 인연이 없었으나, 이번에 중국을 넘으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한다.

중요한 일전에서 홈 경기를 치르지 못하거나 격리로 인해 주축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다.

상호 간 자가격리 면제가 보장돼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문제없이 경기가 치러질 수 있다.

이에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이달 18일까지 한-중 양국에 자국 코로나19 관련 프로토콜, 홈경기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와 중대본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홈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우리 측은 홈 경기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고, 현재까지 기존 경기 일정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다. AFC가 한국과 중국의 의견을 검토한 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함평 출신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당선

함평 출신 정진완(55·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이 장애인체육회 수장 자리에 올랐다.

정 당선인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에서 열린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 투표수 67표 중 41표를 얻어 이명호(64·25표) 후보, 안태성(59·1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 당선인은 2025년 2월까지 4년간 장애인체육회를 이끈다.

정 당선인은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장을 역임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을 거쳤다.



정 당선인은 가맹단체와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자율성 보장과 역할 강화, 선수·지도자·심판 인재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대표 지도자 급여제 전 종목 실시와 지도자 해외 연수, 은퇴 선수를 위한 '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상임심판 전 종목 확대와 국제심판 자격 취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인 출신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된 건 이명호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

## 유창혁 9단 통산 1300승 달성

### 국내 프로 바둑기사 4번째

유창혁(55·사진) 9단이 국내 프로 바둑기사 중 4번째로 통산 1300승을 달성했다.

유창혁은 19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8기 대주배 남녀 시니어 최강자전 예선 1회전에서 차민수 5단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1984년 4월 입단 대회를 통해 프로기사 자격을 얻은 유창혁의 개인 통산 1300번째 승리다.

20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1300승을 기록한 국내



한 한국 바둑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연합뉴스

프로기사는 조훈현 9단, 이창호 9단, 서봉수 9단을 이어 유창혁이 4번째다.

유창혁은 1993년 후지쓰배, 1996년 응씨배, 2000년 삼성화재배, 2001년 춘란배, 2002년 LG배 등 세계대회 타이틀을 모두 획득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

## 우즈, 다섯번째 허리 수술...2월까지 대회 불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가 허리 수술을 받아 최소한 2월까지의 대회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우즈는 20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최근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해 미세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PNC 챔피언십 때 허리 부위에 불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술이 성공적이라고 밝힌 우즈는 "곧 재활을 시작해 투어에 복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즈는 이달 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이나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고질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려온 우즈가 허리 수술을 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4년 3월에 처음 허리 수술을 받은 우즈는 이후 2015년 9월과 10월, 2017년 4월에 차례로 허리 통증 때문에 수술대에 올랐다.

처음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는 약 3개월 만에 다시 대회에 출전했고, 2015년 수술을 받고서는 1년이 더 지난 2016년 12월에야 필드로 돌아왔다.

2017년 4월 허리 수술 이후로는 그해 11월 말에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을 복귀 무대로 삼았다.

앞선 사례들을 살펴볼 때 우즈는 2월까지 대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4월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 출전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중앙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소울
2관	소울
3관	소울, 모추어리 컬렉션, 케넥트
4관	아이 엠 우먼, 도굴, 이웃사촌
5관	소울, 케넥트, 런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6관	소울
9관	제이티 로이, 윈더 우먼 1984
7관 씨네카를	#아이엠하이, 조제
8관 씨네카를	소울, 신과함께-인고연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